

# 한약재 환경호르몬 모니터링

## 식약청, 올해 20종 2003년까지 80종으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내 외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에 대해 본격적인 평가사업에 착수키로 하고 오는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한약재 가운데 DDT 등 유기염소계 농약등의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감초를 비롯한 계피, 두충 등 유통한약재 3백40여종에 대해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DDD, DDE, DDT 등 유기염소계 농약분석을 위한 분석법을 확립함은 물론 한약재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는 20종의 한약재를 대상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오는 2003년까지 대상을 80종으로 확대해 관련 모니터링 작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한약재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모니터링 과제에 4년동안 모두 4억2천5백만원의 연구비와 연인원 70명의 연구인력을 투입할 방침이다.

올해에 진행될 대상한약재는 △감초 △계피 △갈근

△황정 △대추 △오미자 △구기자 △맥문동 △두충 △백작약 △당귀 △마 △천궁 △결명자 △길경 △산수유 △박하 △음양곽 △시호 △건강 등이다.

연구 대상 물질은 △DDD △DDE △DDT △Chlordane △Malation △Parathion △Endosulfan △Dieldrin △Lindane △Methoxychlor △Dicofol 등이다.

이번 연구는 내분비계 장

애물질로 알려진 DDD 등은 농약으로서 토양오염에 따른 잔류성이 있기 때문에 한도량을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자료축적이 요구되는 데다 한약재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허용기준 설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품질이 확보된 한약재를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개량종 백출 약26t 수매 중국산 300t 반입 예정

국산백출 약26톤을 수매해 주는 대신 중국산 백출 300톤이 반입될 예정이다. 한약재 수급조절 위원회는 3월 15일 열린 제28차 회의 결과 "국산백출 수매와 관련하여 백출 300톤을 수입하고 소비자단체등의 신청을 받아 수매와 연계하여 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산 백출 수매를 신청한 단체는 모두 4개 단체(의약품 수출입협회, 약품공업협동조합, 한약협회, 생약협회)이며 이들 4개 단체는

국내산을 각각 6.5톤 정도 수매하는 대신 수입백출 75톤씩을 배정 받게 된다.

수매가 이뤄질 국산 백출은 지난 96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재배되기 시작한 개량종(중국에서 종자를 들여다 국내 재배한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umi)이 대부분, 개량종 백출은 토백출과 달리 평당 수량성이 우수하고 굵기가 크다고 광고한 종근·종묘업자들에 의해 전국적으로 확대재배되기 시작했으나 뿌리썩음병 발생 영향으로 건조후 절단시 속이 텅 비어 있거나 향이 미약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 국내 백출 유통량의 10%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다.

국내 백출 수매 예정량 42,800근(경북영주 27,600근, 강원지역 6,900근, 전남 광주 8,300근)에 대해 한약재 수급조절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수매단가는 근당(6백g기준) 6,950원, 수매시기는 오는 15일 까지 완료 방침이다.

수입시기는 오는 6월말까지이며 수급조절운영기금(1\$당 10원)을 수급조절위원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 7월 국제인삼회의 개최 홍콩 컨벤션센터

5년전인 1994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는 제1차 국제인삼회의(IGC-94)의 후속으로 오는 7,8월에서 11월사이 홍콩 컨벤션 센터에서 제2차 국제인삼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회의 개최지로 홍콩

본 협회가 창립한지 올해로 벌써 30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협회는 6만여 생약재배 농가를 대표하는 생약생산자단체로서 우리생약살리기운동 전개를 통해 생약생산기반 조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책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여러 회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택으로 국산한약재의 우수성 홍보면에서는 나름대로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난 1년은 기상재해로

육 강화해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수입개방화시대 국내 생약농업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산한약재의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재배현장의 애로기술 과제 등을 꾸준히 발굴 지도함은 물론 생약재배에 관심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배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생산자 단체로서의 교육 홍보 활동과 정보수집 및 분석, 정보제공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해도 경기전망은 여전

## 생약농업을 21세기 비전있는 생명산업으로

인한 작황부진에다 IMF한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시장경기가 불황을 면치 못했고 판로가 없어 재고물량을 창고에 쌓아두고 애를 태워야 했던 우리 생약재배 농민들에게도 최악의 한해였습니다.

우리 협회 사무국도 지난 한해동안 구조조정으로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절감하는 긴축예산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우수국산한약재 전시회등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큰 행사를 유보하는 대신 생약관련 제도 시행에 대해 생산농민들의 입장에서 의견을 피력하고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중점 노력해 왔습니다.

회원여러분!

지난해 한약재에서의 중금속 표백제 검출 파동 이후 청정한약재 생산과 고품질화는 수입개방화 시대국산한약재가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는 국산한약재의 우량품종육성 및 보급을 위해 중점 노력할 계획이며 이를위해 생약연구위원회의 활성화와 수입, 국산 품질비교연구를 통한 국산한약재 우수성 홍보를 더

히 불투명한 가운데 국내 생약농업환경은 그다지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수입개방화에 대응 국산 한약재의 경쟁력 제고와 생약농업 육성에 최우선을 두셨으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산학연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올해부터는 생산자 조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협회를 내실있는 생산자조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방안미련에 역점을 두고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21세기 정보화시대를 앞두고 우리협회 사무국의 모든 업무체계를 전산화함으로써 회원관리를 비롯한 대내외적인 행정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여러 회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생약농업이 21세기 비전있는 생명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생약인의 의지를 총결집시켜 나감으로서 새 천년을 준비하는 한해가 되도록 우리 다같이 노력해 나갑시다.

<회장 임연학>

## 세계 한약 소비량 급증

한의학연구원, 세계전통의학제도 조사

세계는 지금 WHO의 전통의학의 가치인정과 서구 시민들의 자연주의로의 회귀풍조에 따라 한의학 법제화의 불이 일고 있다.

독일 약초시장의 규모는 30억달러(독일 의학통계국)로 독일 의약시장의 10%를 차지했다. 이는 유럽공동체 한약시장의 50%로 수위를 달리고 있다.

그결과 서유럽 약초판매액 500만 파운드 이상 제약회사 32개중11개가 독일 약초제약회사가 차지하고 있다.

독일 이외에도 영국, 프랑스, 이태리, 오스트리아 등 전 서유럽 국가의 한약 사용량도 해마다 급격하게 신장되고 있다. 신장규모가 커짐과 동시에 법적 제도적 장치도 갖춰가고 있다.

유럽 말고도 동지중해 지역 국가와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미국, 아프리카, 중동 등지에서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세계각국의 전통의학 제도 조사' 라는 연구보고서에서 밝혀졌다.

이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전통의약은 총 의약품 소비의 30~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판매량이 2.5억달러(1993년). 일본에서의 전통의약제제는 74년에서 89년까지 15배 증가했으며 대만의 경우 총의약품 소비액의 50%가 한약구입에 쓰여지고 있다고 연구보고서는 밝혔다.

1991년 유럽공동체가 조사한 약용식물만 해도 1400가지가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통약물의 국제 무역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1차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법률이 완벽하게 수립되지 못한 상태라는 게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 결정된데는 인삼 생산지는 아니지만 홍콩은 지난 1백50여년간 주요한 인삼의 중계항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현대도 북미에서 생산되는 미국인삼의 80%가 일단 홍콩으로 선적되어 등급이 정해지고 가공되어 중국이나 아시아의 다른 지역으로 재유통되고 있다. 또한 중국 및 한국산 인삼의 상당량

이 홍콩을 경유해 세계 각지로 수출되고 있다.

이번 회의의 목적은 최근 인삼시장의 발달, 생물공학분야에서의 인삼에 대한 최신 정보, 인삼의 의학적 응용분야에 대해 세계적인 인삼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호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것이다.

(참가문의:852-2559-9973 TRAFFIC 동아시아)